

복지는 단결Solidarity이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회복지사들의 단결(Solidarity)과 연대활동이 세계적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근래 들어 각국의 사회복지사들은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대상자뿐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연대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1월에 개최된 러시아사회복지대회 주제가 사회복지사들의 단결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사회복지사협회(IFSW)에 등록된 회원 80여 개국에서 모두 단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단결과 연대활동은 더 이상 특정 이슈에 의한 선택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이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 경제 성장 우선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축소 우려와 같은 국내 문제와 글로벌 시대 도래에 의한 국제연대의 중요성 증가 등이 사회복지사들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단결과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다. 협회는 2006년 현재 16만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의 효과적인 단결과 연대활동 촉진을 위해 사회복지사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협회와 사회복지사들 간,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간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연대활동과 단결을 위해 필수 기본작업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업은 'I am' 카드 보급이다. 사회복지사 전용 카드인 'I am'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로서의 혜택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출결 확인, 사회복지사 인증카드 활용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I am' 카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복지사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06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254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당선됨으로써 단일 직종으로는 최대의 의원 배출 결과를 얻었다. 사회복지사들의 지방의회 진출 수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가름하는 지표이자 그 나라 사회복지 연대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협회는 사회복지사 출신 의원들과 함께 지역복지정책 수립과 실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16개 지방협회와 연대하여 사회복지사 출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사회복지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세계 각 국의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사들과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6년 2월에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이 파키스탄 지진피해지역에서 재난구호활동을

수행하면서 해외 사회복지사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10월에는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참가한 APPLE Workshop을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단결과 연대를 다짐하는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아시아의 중심위치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과 국민 간의 연대활동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잡지인 'Social Worker' 발행,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는 사회복지 인권상담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인권상담소에서는 단계적으로 전국에 상담 변호사들을 확보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모임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입법과정에 참여해 법안을 제안하는 것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타 분야 전문가와의 연대활동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단결과 연대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로 힘써 왔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이한다. 4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단결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국민 복지증진 도모,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과 권익 옹호, 국제연대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들의 진행은 협회의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단결이 바탕이 된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2007년 한 해는 우리 20만 사회복지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단결되어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SW